

외신 동향

□ Past and future tense (Economist 14.12.20)

○ '15년 글로벌 경제는 90년대 후반 경제 상황과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

- 미국의 나홀로 경기 회복, 독일과 일본의 경기 부진, 유가하락과 달러강세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내년 경제 상황은 과거 90년대 위기 이전 모습과 유사

① 나홀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부진에 따른 불균형

- 미국은 '99년까지 매년 약 4%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(30년래 최저치인 4%까지 하락), 해외투자 유입 증가에 따른 달러강세 및 주가상승 등 호황기를 누림
 - * 당시 로렌 서머스 재무장관은 “세계 경제는 한 개의 엔진으로 움직인다”고 발언
- '15년 경제 역시 미국은 3%의 견고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, 유로지역은 1.1%, 중국은 7% 수준까지 하락하며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

②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거대 양 축인 독일과 일본의 경기 부진

- 일본은 '97년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고, 독일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한 기업비용 상승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'유럽의 병자'로 불리움
- '15년에도 독일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
- 일본은 성급한 소비세 인상(14.4)으로 디플레이션 타개를 지연하며 '97년의 실수를 반복

③ 유가하락과 달러강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 및 금융시장 불안 재점화

- 과거에는 신흥국들의 고정환율제도와 외채 부담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
- 현재는 외채비율 감소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,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위기 및 브라질 기업부채 심화 등이 최대 현안

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효한 정책수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90년대 후반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면 과거보다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**선제적 리스크 관리**가 2015년 경제의 핵심